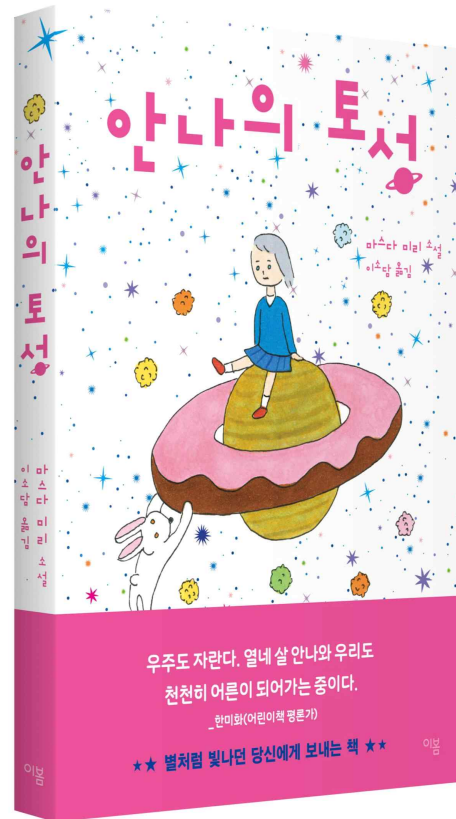


안나의 토성

마스다 미리 소설



원제 : アンナの土星

지은이 : 마스다 미리 || 옮긴이 : 이소담

분야 : 소설>일본소설 소설>성장소설 || 발행 : 2021년 12월 23일

형태 : 128*188 (무선) || 면수 : 196면 || 가격 : 13,000원

ISBN: 979-11-90582-56-8 (03830)

★마스다 미리 첫 장편 소설!★

“우주도 자란다. 열네 살 안나와 우리도

천천히 어른이 되어가는 중이다.”

_한미화(어린이책 평론가)

10881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455-3 || 031-955-9981(9982/9983) || ejlee@yibombook.com

문의: 편집부(이은주) 010-9967-8935 마케팅부 031-8071-8673

이봄

● 도서 소개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반짝임을 발견해내는 작가, 마스다 미리 첫 장편 소설!
기억하나요? 우주의 의미를 궁리하던 당신의 천진한 마음을

《오늘의 인생》, 《주말엔 숲으로》 등의 작품을 통해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섬세한 감정을 묘사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다정하고 담담한 이야기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작가 마스다 미리가 이번에는 장르의 걸을 넓혀 ‘우주와 일상’을 소재로 한 장편 소설을 출간했다.

토성의 고리가 보이지 않는 15년 주기가 돌아온 해인 2008년, 도쿄 변두리에 사는 고민 많은 중학생 안나와 그런 안나의 고민에 광활한 우주적 관점의 해답을 들려주는 ‘우주 덕후’ 오빠의 이야기가 담겼다.

흔들리는 순간에도 또 한 걸음을 내딛는 안나의 열네 살을 담은 마스다 미리 식 ‘우주 성장 소설’을 읽다 보면 일상 속에서 작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또 인생을 뚝뚝뚝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 따스한 격려를 받는 듯한 느낌이 든다. 드넓은 우주 속 단 하나의 별인 당신. 그런 당신에게 어린 시절 우리는 흔들리는 순간조차 반짝였음을 전하는, 쏟아질 듯한 별하늘만큼 빛났던 순수한 마음이 가득 담긴 가슴 뭉클한 소설을 건넨다.

밤하늘에서 별이 빛났다. 내 손바닥에 닿는 공기는 아득히 먼 곳까지 이어지는 우주 그 자체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폴짝폴짝 뛰었다. 여기에요, 여기에 있으니까, 발견해주세요.

-본문 194쪽

“모두들 까맣게 잊어버렸다. 자기가 열네 살이었던 때를.”
어느덧 어른이 되어버린 우리의 온화하고 투명했던 첫 순간들

열네 살 안나의 촌촌한 일상을 읽다 보면 아련히 잊고 있던 중학교 시절의 감각이 생생히 떠오른다. 보건실에서 누워 있을 때 내 몸이 웬지 내 것이 아닌 것 같았던 생경한 기분, 대화를 제대로 나눠보지도 못했던 선배를 몰래 짝사랑하던 마음, 무리에서 동떨어져 혼자 있을 땐 숨이 막힐 것 같았던 중학교에서의 긴장감, 또 때로는 어른들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 유쾌한 열네 살 여학생을 연기했던 그때의 감정들처럼. 소설 속 장면들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들을 일깨우며 독자를 다른 우주로 초대한다.

“어른이 되고 싶었던 어른은 어쩌면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 자기도 모르게 어른이라고 불리기 시작해서 다들 꽤 놀라지 않았을까.”

-본문 72쪽

마스다 미리의 우주에서 우리는 순수한 ‘첫’ 마음들에 미소 짓게 된다. 처음이라 마음껏 솔직했고 마음껏 기뻐하는 행운을 누렸지만, 동시에 처음이라 온 마음을 다해 아픔을 견뎌야 했던 그 때. 열네 살이 지닌 풍부하고 다채로운 감정을 묘사하는 장면들을 보면 이제는 중견 작가인 마

스다 미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의 영역은 어디까지 일까. 하고 놀라게 된다. 어른과 아이의 마음의 경계선을 두지 않고, 모든 어른들에게는 “어린아이의 마음”이 있을 지도 모르니까 “전부다 어른인 사람은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마스다 미리는 이번에도 우리가 놓치고 있던 드넓은 마음의 스펙트럼을 특유의 담담한 어조로 담아냈다.

“어른이 되는 순간에 뭔가 달라지는 게 있을까?”

“순간이라. 글썄다. 순간적으로 어른이 되진 않을 거 같은데?”

- 본문 83쪽

“우리의 마음은 수성이나 보름달이나 토성 고리로 흘러넘칠 만큼 가득하다.”

마스다 미리가 전하는 우주의 근사함, 그리고 우리의 특별함

우주에 대해 마지막으로 골똘히 생각해본 적이 언제일까. 무한한 시간과 만물을 포함하고 있는 끝없는 공간, 우주. 분명 궁금해했던 적이 있었지만 언젠가부터 우주의 존재 따위를 고민하는 것은 사치가 되었다.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도대체 우주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당장 오늘의 일들도 힘든데 그런 고민이 다 무슨 소용이냐고 묻는 이들에게 마스다 미리는 “별의 죽음은 우리와 관계없는 일”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누군가와 오늘 밤에 본 별하늘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도 괜찮을 것 같지 않”냐고 답한다.

“이 하늘에는 오늘 밤 죽는 별도 있고 지금 태어나는 별도 있어.

우리와 관계없는 일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안.

누군가와 오늘 밤에 본 별하늘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도 괜찮을 것 같지 않니?”

- 본문 192쪽

안나의 일상에 끼어드는 오빠의 뜬금없는 우주 이야기는 엉뚱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안나가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문을 여는 역할을 한다. 안나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노닥치를 안타까워할 때 오빠는 명왕성의 이야기를 꺼내며 “행성에서 퇴출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별인 명왕성은 아무렇지 않을 것 같다”는 걸 일깨우고, 매일 상처를 겪어야 하는 사람과 달리 “별은 가만히 있어도 되니까 좋겠다”고 말하는 안나에게 모든 별과 우주의 만물 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다고, 힘이 들어도 공전하며 스스로의 몫을 해내고 있는 토성은 그 증거로 지구에서 15년 주기로 고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한다.

마스다 미리의 소설 속에서 일상과 우주의 이야기는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지며, 영원하다고 느껴지는 우주에도 시작과 변화와 있다는 것, 그리고 나라는 존재 역시 수많은 우연이 겹쳐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렇게 당연하지만 잊고 있었던 마음과 현상들을 실감하는 것은 우리가 소설을 읽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안나의 토성》을 읽다 보면 이 드넓은 공간과 영겁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하나의 이 우주와 맞먹는 기적 같은 존재라는 걸 실감하게 된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나아가길 바라는 마스다 미리의 별처럼 빛나는 위로는 우주 속 유일한 별인 우리에게로 와 닿는다.

“우주의 수수께끼가 조금 해결되었다고 해서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
그래도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떠나 알고 싶다는 갈망을 숭고하게 여기는 점이 대단한 거야.”

-본문 101쪽

● 책 속에서

“지구의 위성은 달 하나뿐이지만 목성은 위성이 육십 개도 넘어. 목성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달이 잔뜩 떠 있을 테니까 밤하늘이 정말 신기해 보이겠지.”

우주 이야기를 하는 오빠의 목소리는 지금 막 튀겨져 나온 도넛처럼 언제나 폭신하고 경쾌했다.

-본문 7쪽

어린 나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른의 사정이란 차츰차츰 알게 되는 법이다. 나도 이제 만으로 열네 살이다. 시공간이 다른 곳에서 생기는 여러 사정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을 정도로는 성장했다.

-본문 8쪽

“우주가 생기고 137억 년이 지났는데, 단 한 번도 똑같은 밤하늘은 없었어. 지금 올려다보는 하늘과 내일 하늘은 다르고, 내일 하늘과 모래 하늘도 달라. 매일매일 새로운 하늘이 보인다고 생각하면, 나는 화성의 저녁놀을 한 번 보는 것보다 지구의 하늘을 가능한 한 오래 보는 쪽을 선택할 거야.”

-본문 25~26쪽

중학교는 공기가 부족한 것 같다. 마치 빈 페트병에 아이들을 모두 집어넣고 뚜껑을 꼭 닫아놓은 것 같은 분위기다.

-본문 33쪽

우리는 열네 살 여자애를 연기하고 있다. 학교 밖 세계에서 잘 처신하기 위해서. 위험을 피하며 골목길을 걷는 고양이를 보면, 나는 저 녀석이 지금 나와 어딘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

-본문 43쪽

모두가 혼자라면 외톨이인 사람도 없다. 모두가 외톨이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노닥치는 이제 괴롭지 않을 텐데.

-본문 46쪽

“오빠, 나, 아주 멀리 가고 싶어. 아예 우주 같은 데? 차라리 다른 별에 살고 싶어. 목성 같은.”

-본문 48쪽

“안. 우주는 저렇게나 넓은데 우리는 또 정말 답답하지. 그런데 이거, 대단한 기적이기도 해.”

-본문 50쪽

싫은 일은 왜 좋은 일보다 더 오래가는 걸까?

아무리 즐거운 일이 많아도 싫은 일이 딱 하나 있으면 그게 더 무겁다.

-본문 143~144쪽

내 옆에는 미즈호가 있다. 우리는 둘 다 열네 살이다. 이걸 46억 살이라는 지구의 나이와 비교하면 ‘순간’보다도 짧지만, 그래도, 그래도 절대 0은 아니라고 굳게 믿을 수 있다.

-본문 153쪽

봉지에서 흘러넘친 별사탕처럼 별은 밤하늘에 데굴데굴 굴러다녔다. 새하얀 별, 빨강게 보이는 별. 빨간 별은 이제 곧 죽는 별이라고 오빠에게 들은 적이 있다. 나는 오늘 밤 그 어떤 별도 이 세상에서 떠나지 않기를 기도했다.

-본문 190쪽

“그런데 안. 이렇게 밤하늘을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 나는 우주의 신비를 해명하고 싶다는 갈망보다 사실은 오늘 본 아름다운 별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은 갈망이 큰 것 같다고.”

-본문 192쪽

밤하늘에서 별이 빛났다. 내 손바닥에 닿는 공기는 아득히 먼 곳까지 이어지는 우주 그 자체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폴짝폴짝 뛰었다. 여기예요, 여기에 있으니까, 발견해주세요.

-본문 194쪽

● 차례

1장 토성 고리가 사라진 날

2장 팬찮은 명왕성

3장 보라색 저녁놀

4장 오늘은 소행성이 충돌하지 않았으니까

5장 달과 플라네타륨

6장 밤하늘의 공기

● 지은이

마스다 미리 益田ミリ

1969년 오사카 출생.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반짝임을 발견해내는 작가.

그 반짝임으로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마스다 미리는 만화, 에세이, 그림책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썼다.

최근 국내 출간작으로 에세이 《생각하고 싶어서 떠난 핀란드 여행》, 만화 《오늘도 상처받았나요?》, 《생각이 많을 땐 고양이》, 《오늘의 인생 2》 등이 있다. 이번 작품은 마스다 미리의 첫 번째 소설이다.

● 옮긴이

이소담

동국대학교에서 철학 공부를 하다가 일본어의 매력에 빠졌다. 읽는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책을 우리말로 아름답게 옮기는 것이 꿈이고 목표다. 지은 책으로 《그깃 '덕질'이 우리를 살게 할 거야》, 옮긴 책으로 마스다 미리의 《오늘의 인생》, 《혼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생각이 많을 땐 고양이》와 《최애, 타오르다》, 《무기모토 산포는 오늘이 좋아》 등이 있다.

● 추천사

우주도 자란다.

열네 살 만나와 우리도 천천히 어른이 되어가는 중이다.

-한미화 (어린이책 평론가)